

## 1205(월) 데살로니가전서 1-5장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랑하라

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습니다.  
<유대적 메시지>와 <부활>에 대한 생소함 때문이었습니다.  
그럼에도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안에서 역사하셨고,  
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(1장).

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으며(1:7-10),  
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핍박도 받게 되었습니다.  
이는 그들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(1:5-6).  
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계신 표지들 즉,  
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(1:3-4).

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.  
아버지처럼 사랑하며 돌보았으나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.  
바울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했지만,  
성도들은 주님께 신실했으며 충성스러웠습니다(2-3장).  
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.

지금은 비록 핍박받으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,  
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(vindication) 날이 올 것입니다.  
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실 그 날,  
새 몸을 입고 새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날을 바라며  
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(4장, 5:10).

성도들은 <한밤중>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,  
부활과 성령을 통해 <한낮>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(5:4-8).  
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로,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.  
성/돈/죽음에 대하여 주의 명령과 임재, 능력으로 반응하며(4:3-12)  
믿음과 소망, 사랑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(5장).

**나는 믿음, 소망,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?**

- ❶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소망하고 있습니까?
- ❷ 한밤중인 세상에서 성령으로,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데살로니가전서 1-5장